

번역의 야망

황현산

고려대 교수·불문학

요즘 범람하는 외국 대중소설들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없이 두 가지 종류의 번역, 전혀 우리말이 되어 있지 않은 번역과 우리말로 쓴 글보다 더 우리말인 번역들을 만나게 된다. 그 결과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번역은 정보 전달의 어중잡은 수단, 다시 말해서 부족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는 번역이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고 했다지만, 임시방편에 피를 말릴 필요는 없었다. 원 텍스트의 '의미심장함'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기를 꺾거나 독자의 나태한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부족한 번역의 책임을 면하면 그만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험과 사고의 집적이다. 어느 집단이건 인류의 총체적 경험의 일부만을 경험했으며, 그 총체적 역사의 일부만을 살아왔으며, 그 사고 전체에 자기 몫을 그 일부로 기여하였다. 어느 집단도 인간이 겪고 개발해온 경험·역사·사고의 전체를 지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언어도 인류적 경험과 사고의 총체를 표현하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에는 이르지 못한다. 결국 모든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방언이다. 한 집단에게서 그 경험의 공유를 말하는 이 방언적 특성이 그 집단을 정서적으로 한데 묶는다. 감정상의 깊은 유대는 그들의 부분적 진실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잘못 믿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모국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을 터이지만, 이 직관은 그 언어에 대한 재능임과 동시에 그 민족·역사·시대적 특수성, 그 방언적 선입관에 붙잡혀 있음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다.

번역은 하나의 언어로 가능했던 사고의 결과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며, 그 사고를 다른 언어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두 언어는 모두 부족한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어느 쪽의 언어도 이르지 못한 저 보편적 언어를 암암리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자는 동시에 두 언어를 보편성의 실험대에 올려놓는다. 말하자면 보편성을 통해서, 축적된 두 특수 경험의 환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대상 언어의 특수성으로 빚어진 사고가 어떤 정도의 보편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규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편적 가치가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자기 모국어의 내부에서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우리말이 안된 번역은 그 대상 언어의 특수성에 압도되어 그것을 보편성으로 혼동한 결과이며, 원문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유창한 번역도 대개의 경우는 대상 언어와 우리 언어의 두 특수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간격을 보편성이 아닌 상투성으로 메꾸어 놓은 결과이다.

번역이 모국어의 순수성을 해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말이 안되는 독자 역들이 주로 그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유창한 우리말 번역도 우리말을 불순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언어는 항상 상투적인 언어이다. 상투적 번역은 모국어에 대한 직관이란 이름으로 그 방언적 특성, 그 편협성에 우리를 안주하게 한다. 불순이란 편협의 다른 이름이다. 게다가 독자역은 그 특유의 성실성에 의해 자성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속임수가 그 본질인 상투적 번역은 그 기회를 도리어 두려워한다.

우리 출판계에서 번역물의 출판은 앞으로도 그 자리가 쉽게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며, 번역에의 열망 또한 오랫동안 드높을 것이 분명하다. 이 열망이 지속되는 한국어는 운이 좋다. 좋은 번역은 새로운 언어적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언어의 내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힘을 동원한다. 모국어의 구석구석에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번역의 재촉으로 눈을 뜬다. 결코 흔하지 않은 이 행운을 완벽하게 이용하겠다고. 번역과 그 출판은 야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번역은 진지한 작업이다.

표지	2	세월의 지층 퇴적된 우리들 얼굴의 원형 국립민속박물관 펴냄 「한국인의 얼굴」
초점	4	도서정가제 철옹성 과연 허물어지는가 - 최태원
연재기획	6	“시유의 모험이 왕국을 짓는 약속의 땅” - 김상환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⑥ 글쓰기와 미메시스
	20	빅토리아시대 아동도서와 일러스트레이션 - 이호백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②
현장취재	8	글쓰기 지침서들 백가쟁명의 열전 별인다
서평	10	자이먼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 - 이면우
	1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 강태완
	11	천푸천 「중국우언문학사」 - 김용표
	12	조규익 외 「해양문학을 찾아서」 - 한승욱
		김원일 「믿음의 충돌」 - 이종환
확대서평	13	김재권 지음 「수반과 심리철학」 - 이봉재
	17	어그로스 외 지음 「새로운 생물학」 - 이병훈
기획취재	14	해외베스트셀러 국내시장 입성 실태
출판취재	18	‘의미있는 여행’ 안내하는 답사기 출판 붐
이 책 그 사람	22	「먼나라에서 이렇게...」 낸 김지수씨 「한국의 토종기행」 낸 홍석화씨
	23	「샘이나는 한국이름」 낸 박동굴씨 「영화에세이」 낸 김성곤교수
카툰특집	24	책이 있는 여름
해외출판	26	새로운 꿈 창조하는 미국의 뉴에이지북 - 유은영
세계의 책	28	이탈리아 민족운동 이끈 세속의 성인 - 배병삼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시간
	34	신간안내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4	200자 안내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 ③

술마시기 대회

얼마전 제 이십차 연수 酒黨 소속 다섯 명과 교무부 대표 두 선생이 술시합을 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무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화류계 생활 십여 년의 두 선생은 술이 부족하다는데 연수생들은 이미 일종을 반납(오오바바이이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명한 선술집, 빈대떡집, 대구탕집, 돼지갈비집 등의 名酒家를 수업시간에 배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연수생 부모님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비기자모집/대재 및 졸업자(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02)747-1991 취업보도실/(02)747-1993

대학로 파리크라상위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